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야 43:4, 이사야 49:15, 시편 46:1

Day 1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 그리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20

Day 2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말씀을 들어도 경외심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을 맞이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기갈 해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기갈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8-28

Day 3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롬1:18).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으로 그 지식을 억누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21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25절). 이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면서도 그 지식을 억제하므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미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버리고 오히려 거짓 것을 추구하고 좇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28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용적 지식으로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박윤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27-31

Day 4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할 때에 그의 계명을 복종케 하시려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시편기자처럼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시19:7-13).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을 굳게 하고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신실하게 축복 하시지만 우리가 거둬 불순종할 때에는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신실한 징계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기 때문입니다(히12:11). 징계를 받을 때에서야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을 얻은 후에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8-14

Day 5

하나님의 용서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목이 굳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늘 배반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의 성품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는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있는지요?

이사야 6:1-5

Day 6

하나님의 만지심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6:5)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반응도 겸손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시편 48:14

Day 7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생의 미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바라는 우리를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은 많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긍휼 가운데서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춰주시며 또한 내재하시는 선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선한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 약속의 땅인 천성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7-10

Day 8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느끼는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우리를 방치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출애굽기 3장7절과 9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녕히”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자주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들의 대적인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계셨 으면서도 그를 원수로 여기사 치시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13

Day 9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환영한 자였습니다(히 11: 13). 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약 400년 이후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믿음의 인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창15)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충성하여도 그가 하신 약속을 직접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맺음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3

Day10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질의 복과 인복을 풍성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큰 복들을 받은 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을 받은 후라 생각합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어떻게 소유 할 수 있습니까? 복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이끌림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들의 등 뒤에 두고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들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엡1:3)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중의 복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겸손히 또한 지혜롭게 누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a